일주문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현성정사 주지 현성 스님은 5월 28일 지역 어르신 150여 명을 초청해 국악공연과 다과 등으로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범어사서 분회 지도자 연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6월 3일 부산 범어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파라미타 분회간부 학생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자비의 탁발' 행사 기금 전달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은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 단기출가 동자승들이 모금한 320만원을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에 전달했다.

탄허대종사 전국휘호대회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6월 8일 오전 11시 월정사 경내에서 탄허대종사 선서함양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한다.(033)332-6661

봉원사 법당서 장학금 전달

원각회 상임법사 일운 스님은 5월 20일 신촌 봉원사 법당에서 대부고등학교 이수진 학생 외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인터넷 저널' 공동대표 취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효림 스님은 최근 온라인매체 비평전문미디어 '인터넷 저널'의 공동대표 겸 발행인을 맡았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음악회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6월 2일 혜원정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제6회 혜원음악회를 개최하고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화엄사서 공불련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성윤갑 회장은 6월 9~10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7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02)739-1080

19회 서우철학상 수상자 선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효 명예교수가 제19회 서우철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6월 8일 오후 5시 삼성화재빌딩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컬러디자인전문학교 학창 취임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前 원장(경기대 예술대학 명예교수)은 5월 24일자로 한국컬러디자인전문학교 학장에 취임했다.

"기초 다지고 새롭게 도약할 것"

창립 30돌 맞는 조계사 청년회 박희정 회장

서울 조계사 청년회가 창립 30돌을 맞았다. 사람 나이로 쳐도 그야말로 청년기다. 1977년 6월 4일 창립법회를 봉행한 뒤 일주일에 2번씩 정기법회를 진행해오며 결속력을 다져온 조계사 청년회.

창립 30주년 기념 '포교원장 혜총 스님 초청대법회 및 문화축제'가 열리기 이틀 전인 5월 31일 조계사에서 박희정(39 · 보련행 · 사진) 회장을 만났다.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인연이 돼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감도 큽니다. 청년회가 이전보다 규모도 많이 줄었고 선후배간의 교류도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전의 위상을 찾았으면 합니다."

조계사 청년회는 30살을 맞으면서 수많은 회원들을 배출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5000명 이상은 된다고 한다. 현재 불교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도 있다.

초대회장은 충주 구부사 주지를 맡고 있는 혜원 스님이며, 화성 용주사 사회국장인 영산 스님도 청년회 출신이다. 정상옥 前 대한불교청년회 회장과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도 마찬가지.

조계사 청년회는 한국불교 중심인 조계사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하다. 걸어온 길이 그것을 증명한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단 사태가 나 법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스님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삭발도 했고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 앞에서 3000배 릴레이 철야정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80~90년대에 비해 청년회 활동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비단 조계사 청년회만의 고민거리는 아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임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라는 뜻의 이립(而立). 조계사 청년회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여전히 뛰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글로 풀어낸 재소자들의 '눈물과 회한'

옥천 대성사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출판 기념 법회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지난해 전국 50여 교도소 및 구치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 1회 전국 재소자 효 및 문화작품 공모전' 응모작들을 모은 책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출판 기념 법회가 5월 30일 청주시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열렸다.

이 책에는 영어(囹圄)의 몸이 된 뒤 느끼게 된 부모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 있는 편지, 시, 수필 등이 실려 있다.

기념 법회에는 보현사 주지 원봉 스님, 청주 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남동우 청주시의회 의장, 한철호 대전지방교정청장, 한용택 옥천군수,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 보고, 변주연 충청매일 사장의 발간사, 축하 케이크 절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은 어린 시절 경계와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끊임없이 친아버지 못지 않은 부정(父情)을 보여 준 새아버지에 대한 애끊는 정을 편지에 담은 대상작 '아버지, 내 아버지!'를 비롯해 최우수상작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등 30여 편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혜철 스님은 "351편이 응모할 만큼 이번 공모전에 재소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며 "이 책을 통해 재소자들의 마음을 한번쯤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으며, 그들이 하루속히 사회로 나와 우리와 함께 동반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5월 30일 열린 출판 기념 법회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대성사는 7월 20일까지 '2회 전국 재소자 효 및 문학작품 공모전' 응모작을 전국의 교도(구치)소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당선작은 8월 1일 해당 교도(구치)소로 통보되며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 역시 책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043)732-5560

청주=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철호 법사 이라크 파송 신고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부대에 파송될 조철호 군법사(과학화훈련단 호국응봉사 주지)가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파송을 신고했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자이툰 부대원들의 약 30% 정도가 불자인 것으로 안다"며 "포교 환경은 열악하지만 부대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눔회 나눔의 집 발마사지 봉사

서울 마르페스포메디 병원 족부클리닉팀 봉사단체인 나눔회는 5월 24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 할머니들에게 발마사지 봉사와 함께 기능성 신발 '닥터 포 닥터' 20여 컬레를 전달했다. 김만장 족부클리닉팀장은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정기적으로 나눔의 집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봉은사 방문

크로아티아의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외무장관 일행이 5월 25일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를 참배했다. 드라고 스탐북 주한 대사, 젤리코 벨라이 외교부 대변인, 베스나 클라이치 외교부 유라시아 국장 등이 수행원으로 참가했으며 대웅전과 영각, 칠성각 등 봉은사 경내를 둘러본 후 명진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불교계 인재 양성에 앞장"

홍법대상 수상 윤용숙 불이회 명예회장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신 부처님 전에 기쁨을 돌리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 6월 6일 제1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에서 수여하는 홍법대상을 받는 윤용숙 불이회 명예회장(71,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윤 회장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공덕 닦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교계 인재양성불사에 전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계에 삼보를 호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대신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는 윤 회장은 "주시는 분들의 성의를 생각해 상은 고사하지 않았지만 상금 1000만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1959년 숙명여대 국문과를 졸업한 윤 회장은 인천박문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를 거쳐 1974년 불자 어머니 모임인 불이회를 창립했다.

불이회 초대회장을 맡아 불교발전을 위해 미개척 분야에서 힘쓰는 사람들을 발굴, 시상하고 후원해주는 불이상을 만들어 인재양성을 해왔다.

또 1992년 (재)보덕학회를 설립해 불교포교에 전념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매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1994부터 사단법인 여성문제연구회 제5대 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나무아미타불!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念佛萬日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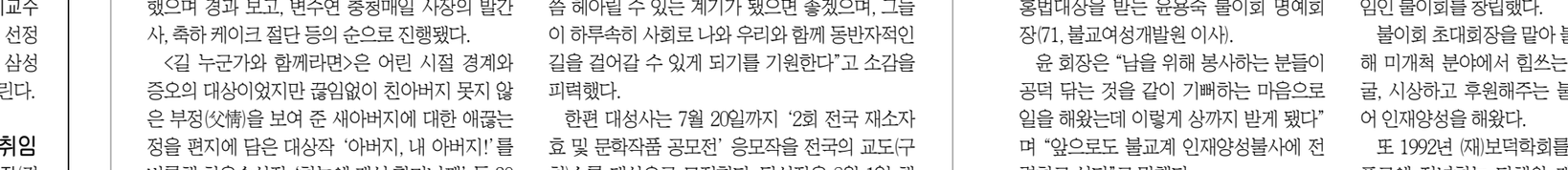
한국불교는 念佛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대중화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중흥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시민이 필요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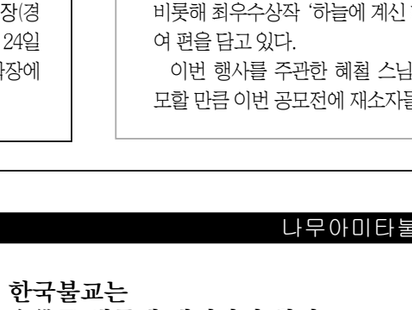
평생염불 나무아미타불

10차년도 2007년 여름성지대회는 건봉사 ·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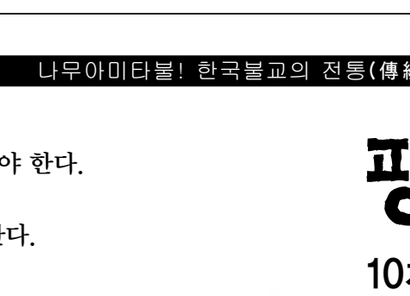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 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대구 팔공산 은해사, 제주도 법화사, 충남 덕숭산 수덕사, 경주 불국사를 순례하였고, 올해는 설악산 계곡 만해마을과 금강산 건봉사에서 개최합니다.

제1차(건봉사) 제2차(건봉사) 제3차(대원사) 제4차(백담사) 제5차(미황사) 제6차(은해사) 제7차(법화사) 제8차(수덕사) 제9차(불국사)





금강산 건봉사 등공대



백담사 만해마을 전경

◆일 시 : 2007년 7월 29일 ~ 7월 31일(2박 3일)
◆장 소 :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 · 건봉사
◆접 수 : 전화신청후 은행계좌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 농 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동 참 비 : 개인직접 백담사 만해마을로 오실 분 7만원 ·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하실분 10만원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문 의 : 02)732-1215~17 / FAX 732-1207

※ 평소 염불수행을 원하는 신규회원 - 가입안내 : 가입비 3만원(염불수첩제공).
◎ 차량과 숙식관계로 6월 30까지 1차 마감함.
◎ 전국염불만일회 백담사 만해마을 성지대회에 동참하실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동산불교회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